中國語文學 第58輯(2011. 12) 361-380쪽

“登”同源字 探索

秦 光 豪*

<目 次>

Ⅰ. 序 言
Ⅱ. 登과 同源字
1. 從登聲
2. 從丞聲
3. 從承聲
4. 從乘聲
5. 從曾聲
6. 從朕聲
7. 從夌聲
8. 從升聲
Ⅲ. 結 言

Ⅰ. 序 言

同源字 연구는 字意의 語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독음이 같거나 유사한 관계를 갖는 문자 간에는 자의 상에도 어떤 연관성을 갖는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王力은 “무릇 음과 뜻이 모두 비슷하거나 음이 비슷하고 뜻이 같은 것, 혹은 뜻이 비슷하고 음이 같은 문자를 동원자라 한다. 이 문자들은 모두 동일한 근원을 갖는다. …… 동원자는 항상 어떤 한 개념을 중심으로 어음의 미세한 차이 (혹은 동음)로 近似하거나 연관되어지는 몇 개의 개념을 나타낸다.”[1]고 하였다. 詹鄞鑫은 “동원자 간에는 독음

* 釜山外國語大學校 中國語學部 敎授.

1) “凡音義皆近, 音近義同, 或義近音同的字, 叫做同源字。這些字都有同一來源。…… 同源字, 常常是以某一概念爲中心, 而以語音的細微差別(或同音), 表示相近或相關的幾個概念。” 王力 著, ≪同源字字典≫ (商務引書館, 1987), 3쪽.

www.kci.go.kr

상 필히 유사하거나 상통하는 관계를 갖는다. 자의에도 필히 어떤 연계성을 갖는다. 따라서 음이 유사한 문자는 뜻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 동원자 간에는 음과 음의 연계, 뜻와 뜻의 연계, 음과 뜻의 연계로 이는 동일한 현상에 있어 세 개의 관찰 각도이다"[2]라 하여 同源字는 音·義의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동원자란 독음이 같거나 유사한 문자들이 포괄적인 한 개념을 중심으로 그 개념의 범주에 속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관계로 묶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3]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同源字들을 연계시키는 데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종적(수직적)인 관계로 동일한 성부의 형성자 중에서 동일한 어원을 갖는 문자를 연계시키는 것으로 '諧聲同源字'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횡적(수평적)인 관계로 자형의 연관성은 고려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독음과 의미에만 의거하여 연계시키는 것으로, '字形不同同源字'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오르다', '타다', '높다', '높이다', '솟다'는 등의 의미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登'字를 중심으로[4], 횡적으로는 字義와 字音上 同源의 관계가 있는 문자 丞, 承, 乘, 曾, 朕, 夌, 升字를 연계시키고, 종적으로는 이들 문자를 성부로 갖는 諧聲字를 대상으로 하여 고문자와 ≪설문해자≫, 字書, 韻書, 훈고학서, 그리고 經典 등을 참고로 아래와 같이 횡적·종적인 동원관계를 탐색하여 증명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내 동원자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고, 많은 한자를 일련의 관계로 체계화시켜 이해하고, 교수·학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同源字之間在讀音上必有相近或相轉的關係, 字義上必有某種聯系。由於音相近的字意義也可能構成聯系, 從而, 音與義之間也構成一定的聯系。同源字之間音與音的聯系, 義與義的聯系, 音與義的聯系, 這是同一種現象的三個觀察角度。" 詹鄞鑫 著, ≪漢字說略≫, (遼寧教育出版社), 260쪽.

3) 拙稿 <"含" 同源字 探索>, ≪대한중국학회≫38집, 2쪽 참조.

4) '登'字를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登자가 이들 의미의 원조라는 뜻은 아니다. 가장 자주 쓰이는 문자이므로 대표로 세운 것이다.

www.kci.go.kr

Ⅱ. 登과 同源字

登字를 중심으로 登字와 횡적·종적으로 동원관계를 갖고 있는 문자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從登聲

登

≪설문해자≫ 癶部에 “登, 上車也. 從癶豆, 象登車形.”

갑골문의 자는 豆 형태의 발판(실제로 豆는 아님)을 두 손으로 받들고 있고, 이를 두 발로 딛고 수레나 말에 오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설문≫은 “上車也”하였다. 이에서 인신되어 일반적으로 ‘오르다’, ‘타다‘, ‘높이다’, ‘높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從登聲의 해성자 중에서 登과 동원관계를 갖는 문자를 찾아 증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簦

≪설문≫ 竹部에 “簦, 笠蓋也. 從竹, 登聲.”

簦은 우산을 뜻한다. 段玉裁의 <注>에도 “有柄如蓋也, 今之雨繖.”이라 하여 덮개 같은 것이 있고 손잡이가 달린 것으로 지금의 비를 가리는 우산을 뜻한다 하였다. 이는 대를 엮어 만든 것으로 손잡이를 잡고 위로 들어 올려 비를 막는 것이다. 簦의 성부 登은 ‘위’나 ‘올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登의 동원자라 할 수가 있다.

隥

≪설문≫ 阜部에 “隥, 仰也. 從阜,登聲.”

<段注>에 “仰者擧也. 登陟之道曰隥, 亦作墱.……此以形聲包會意.”라 하였다. 隥은 오르막길을 뜻하는 문자로 오르막길을 오른다는 의미에서 登과

www.kci.go.kr

뜻이 통한다. 따라서 성부 登은 '오르다'는 표의 기능을 갖고 있다. <段注>에도 聲符 登이 '形聲包會意'라고 하여 표의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墱

≪正字通≫ 土部에 "墱, 小坡飛陛謂之墱. … 與隥通."

위의 풀이를 따르면, 墱은 작은 언덕을 오르기 위한 계단을 뜻한다. 계단은 비탈을 오르기 위한 것이므로, 위의 隥자와 의미가 상통(위의 <段注>에 "亦作墱"이라 하였음.)하므로 성부 登 역시 '오르다'는 뜻을 갖는다.

嶝

≪玉篇≫ 山部에 "嶝, 小坂也."

≪集韻・徑韻≫에 "嶝, 說文, 仰也. 或從山."

이에 의하면, 嶝자 역시 '오르막', '언덕'을 뜻하는 문자로 위의 隥, 墱과 같은 의미를 갖는 이체자이다. 隥, 墱, 嶝 세 문자는 모두 登의 동원자라 할 수가 있다.

磴

≪玉篇≫ 石部에 "磴, 巖磴也."

≪正字通≫ 石部에 "磴, 同嶝."

이 역시 돌로 형성된 '산비탈'이나 '오르막'을 나타내는 문자이며, 위의 세 문자와 유사한 의미로 登의 동원자라 할 수가 있다.

撜

≪설문≫ 手部에 "拯, 上擧也. … 從手,丞聲. … 撜, 拯或從登."

撜은 拯의 이체자이며, ≪段注本≫ 이외의 ≪설문≫ 板本에는 扙자로 수록되어 있다. 즉 拯, 撜, 扙은 모두 이체자이다. 이를 통해 보면, 성부 丞과 登, 升은 모두 독음과 의미상 서로 통용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上擧也."란 '들어 올린다'는 뜻으로 앞에서 "隥, 仰也."라 한 것과 같이

www.kci.go.kr

登과 동원관계임을 알 수가 있다.

凳

≪廣韻・徑韻≫에 “凳, 牀凳.”

漢字에서 의자를 말하는 문자 중에 椅와 凳이 있다. 椅는 뒤에 등받이가 있어 기대어 앉을 수 있는 것으로 본래는 倚자였으나 후에 재료인 木을 가해 椅자로 쓰이게 되었다. ≪正字通≫ 木部에 “椅, 坐具, 後有倚者.”라 한 것이 그 증거이다. 이와 달리 凳은 등받이가 없어 기대지 못하고 평상형태로 걸터앉거나 올라앉는 의자를 말한다. 현대 중국어에서도 ‘凳子’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뜻한다. 따라서 凳의 ‘올라앉다’에서 성부 登은 ‘오르다’라는 뜻을 갖는다 할 수 있다.

蹬

≪說文新附≫ 足部에 “蹬, 蹭蹬也. 從足, 登聲.”

≪說文新附≫ 足部에 “蹭, 蹭蹬, 失道也. 從足, 曾聲.”

≪說文新附≫에서는 이 두 문자를 첩운 연면사로 ‘길을 잃다’라 풀이하였다. 그러나 ≪廣雅・釋詁一≫에서는 “蹬, 履也.”라 하였고, ≪集韻・徑韻≫에도 “登, 履也. 或從足.”이라 하였다. 이로 보면, 蹬은 登과 유사한 의미로 역시 ‘걸어 오르다’는 뜻을 가지며, 登과 동원관계 문자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登字를 비롯해 從登聲의 여러 諧聲字는 ‘오르다’, ‘타다‘, ‘높이다’, ‘높다’는 상통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簦, 隥, 墱, 嶝, 磴, 撜, 凳, 蹬은 그 源과 流의 관점에 있어 모두 登字를 源으로 하는 流의 동원자라 할 수 있다.

2. 從丞聲

≪설문≫ 廾部에 “丞, 翊也. 從廾從卩從山. 山高. 奉承之義.”

www.kci.go.kr

≪설문≫에서는 丞을 '돕다', '받들어 모시다'라 풀이하였다. 갑골문에서 丞은 小篆과는 달리 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함정에 빠진 사람을 두 손으로 건져 올리는 모습이다. 이에서 '들어 올리다', '올라가다', '도와주다', '받들다'는 의미로 인신되었다. ≪설문≫의 해석은 인신의 이다. 登과 丞은 앞의 撜, 拯의 예처럼 고음이 서로 가까워 통용이 가능하다. 登은 都滕切로 端紐 6部이며, 丞은 署陵切로 定紐 6部의 문자이다. 端紐와 定紐는 모두 舌音으로 古聲母가 서로 가까우며, 古韻은 6부로 첩운관계[5]이다. 따라서 登과 丞 두 문자는 음과 뜻이 매우 가까우므로 동원관계가 될 수 있다. 從丞聲의 문자 중 登과 동원관계를 갖는 문자는 아래와 같다.

烝

≪설문≫ 火部에 "烝, 火气上行也. 從火, 丞聲."

烝은 지금은 水蒸氣 처럼 蒸字로 대체해 쓰기도 하는데 烝이 본자이다. 열기나 증기가 위로 피어오른다는 뜻이다. 烝의 성부 丞은 '오르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登과 동원관계라 할 수 있다.

拯

≪설문≫ 手部에 "拯, 上擧也. … 從手, 丞聲. … 撜, 拯或從登."

위의 撜字條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輜

≪설문≫ 車部에 "輜, 軺車後登也. 從車, 丞聲. 讀若易拯馬之拯."

輜은 수레의 뒤 발판이라는 뜻이다. 발판은 수레에 오르기 위한 것이므로 輜의 성부 丞은 '오르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登의 동원자라 할 수 있다.

5) 여기서의 古聲과 古韻은 上古音으로, 黃季剛의 古聲 19紐와 段玉裁의 古韻 17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www.kci.go.kr

예를 든 從丞聲의 문자들은 모두 登과 같이 ‘오르다’, ‘올라가다’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므로 烝, 拯, 輕도 모두 登과 음·의가 매우 가까우므로 동원관계의 문자라 할 수 있다.

3. 從承聲

承

≪설문≫ 手部에 “承, 奉也. 受也. 從手卩廾.”

갑골문 承은 의 형태이다. 이는 양 손으로 한 사람을 받들고 있는 모습이다. 앞에 언급한 丞은 함정에 빠진 사람을 구해 올리는 모습으로 자형상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음과 뜻에 큰 차이는 없다. 이에서 承은 ‘봉양하다’, ‘받들다’, ‘높이다’, 올리다‘는 뜻을 갖게 되었다. 承은 丞과 같이 署陵切로 定紐, 6部로 동음이다. 承은 丞과 같이 登과 동원관계라 볼 수 있다.

扌+承[6]

≪中文大辭典≫ 扌部의 ≪韻會≫ “同拯”

拯의 異體이다. 이는 성부 承과 丞이 통용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4. 從乘聲

乘

≪설문≫ 桀部에 “乘, 覆也. 從入桀. 桀黠也.”

≪설문≫은 乘자를 從入桀의 회의자로 보아 죄를 ‘덮다’는 뜻에서 覆이라 해석하였다. 그러나 갑골문의 乘은 의 형상이다. 이는 사람이 나무 위에 다리를 벌리고 올라서있는 모습으로 ‘나무에 오르다’는 뜻이며 ‘오르다’로 인신되었다. ≪설문≫의 해석은 오류이다. ≪韓非子·五蠹≫에 “상고

6) 扌와 承을 합한 자

www.kci.go.kr

시대에 사람은 적고 새와 짐승은 많았다. 사람들이 날짐승, 들짐승, 벌레, 뱀을 견디어내지 못하자, 한 성인이 나타나 나뭇가지를 엮어 나무둥지를 만들어 많은 해를 피하게 하자 사람들은 기뻐하였다. 그로 하여금 천하를 다스리게 하였고 이름하여 有巢氏라 불렀다"[7]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자들은 乘字가 바로 고대인의 巢居形 주거형태(樹上家屋)를 나타내는 문자로 여긴다. 乘은 食陵切로 定紐 6부로 丞과 동음이다. 따라서 乘자 역시 登과 음・의가 유사한 동원관계의 문자라 할 수 있다.

剩

≪正字通≫ 刀部에 "說文作賸[8], 俗省作賸, 剩."

≪설문≫ 貝部에 "賸, 物相增加也."

賸의 <段注>에도 "改其字作剩, 而形異矣."라 하였다. 이로 보면 剩은 賸의 이체자이며, 增加의 뜻을 갖는다. 增자에 대한 동원관계 설명은 아래의 曾字條에서 다시 하기로 한다.

堜

≪集韻・蒸韻≫에 "塍或作塍, 畻, 堜."

아래 塍字條 參照.

5. 從曾聲

曾

≪설문≫ 八部에 "曾, 詞之舒也. 從八從曰, 囪聲."

≪설문≫은 曾을 語詞의 일종으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갑골문과 금문에 보이는 曾자는 전혀 다르다. 甲骨文에는 [illegible], 金文에는 [illegible] 등의 형상으로

7) ≪韓非子・五蠹≫ "上古之世, 人民少而禽獸衆, 人民不勝禽獸蟲蛇, 有聖人作, 構木爲巢, 以避群害, 而民悅之, 使王天下, 號曰有巢氏."

8) 賸자는 原文에는 從月이 從舟로 되어 있음.

www.kci.go.kr

나타난다. 이는 ‘시루’나 ‘찜통’을 나타내는 鬷, 甑의 초문이라 한다. 금문의 자형에서 아래는 물을 담는 부분이고, 위는 음식을 담는 부분이며, 十 모양은 구멍이 뚫린 시루 밑을 그린 것이며, 위의 八 모양은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모양이다.[9] 曾의 본의는 수증기를 이용해 음식을 찌는 시루나 찜통이다. 후에 이 문자가 語詞로 차용되자 용기나 재료를 나타내는 형부 鬲과 瓦를 가해 鬷, 甑의 후기 형성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설문≫은 자의와 자형의 해석에 오류를 범하였다. ≪설문≫ 瓦部에 “甑, 甗也. 從瓦, 曾聲. 鬷, 籀文甑. 從鬲.”이라 하여 ‘시루’로 해석하였다.

시루는 음식에 직접 불을 가하지 않고 물을 氣化시켜 뜨거운 수증기로 음식을 찌거나 데우는 용구이므로 후에 다시 曾字 밑에 불 火字를 가해 “從火, 曾聲”의 형성자 熷[10]字를 만들게 되었다. ≪설문≫ 火部에 “熷, 置魚筒中炙也.”라 하여 ‘물고기를 대통 속에 넣어 굽다’라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문자는 위의 丞字條에서 언급한 烝(≪설문≫ 火部에 “烝, 火气上行也.”)과 같은 문자일 것이다. 고전에서는 熷을 쓰지 않고 烝으로 쓰고 있다. 이는 성부 丞과 曾의 음・의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段注>에는 “與烝相類”라 하였고, 徐灝의 <段注箋>에도 “今用蒸字代之.”[11]라 하여 熷과 烝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또 시루는 밑에 물을 끓이는 솥을 놓고 그 위에 시루 밑을 깐 시루를 올려놓는 이층 내지는 다층 구조이다. 이렇게 겹쳐서 올려놓다 는 의미에서 土를 가한 增자가 파생되었으며, 이층이나 다층 구조에서 層자가 만들어졌으며, 우뚝 솟다 는 의미에서 竲자가 생겨나게 되었다. 또 曾은 ‘겹치다’, ‘중복되다’는 의미로도 인신되어 지금의 거듭 重자로 가차되어 나갔다. ‘중복되다’는 의미는 지금의 曾祖, 曾孫이리는 어휘에 남아있다. 曾孫은 고전에 重孫이라고도 썼다. 層字의 <段注>에 “曾之言重也. 曾祖曾孫皆是也. 故從曾之層爲重屋.”이라 하였다. 또 曾은 ‘높다’, ‘솟다’, ‘우뚝하다’는 등의 의미로 인신되어 登과 음・의가 통용되어 동원관계

9) ≪商周古文字讀本≫ (語文出版社). 300-301쪽 참조.
10) ≪설문≫ 火部에는 灬가 曾자 밑에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11) ≪說文解字詁林≫ (鼎文書局) 8권 764쪽.

www.kci.go.kr

를 맺고 있다. 曾은 昨棱切로 從紐 6부이고, 登은 端紐 6部이다. 端紐는 舌音이고, 從紐는 齒音이나 齒音은 舌齒音이므로 성모가 크게 차이나지 않고, 운모는 첩운관계이므로 동원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從烝聲이 從登聲과 통하고 從烝聲과 從曾聲이 통한다면 從曾聲은 당연 從登聲과 통할 수 있다. 從曾聲의 형성자 중 登과 동원관계를 갖는 문자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熷

≪설문≫ 火部에 "熷, 置魚筒中炙也."

'물고기를 대통 속에 넣어 굽다'라 해석하였으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烝(蒸)과 같이 뜨거운 증기가 올라가다는 뜻일 것이며, ≪설문≫의 해석은 後起義일 것이다. 이는 '오르다' 는 의미와 음·의가 상통하므로 登과 동원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增

≪설문≫ 土部에 "增, 益也. 從土, 曾聲."

이는 시루를 쌓아올리듯 흙을 쌓아올린다는 의미에서 만든 문자이다. ≪설문≫에서 '益'이라한 풀이는 '가하다', '쌓다' 는 의미일 것이다. ≪廣雅·釋詁二≫에 "增, 加也."라 하였고, ≪廣雅·釋詁四≫에 "增, 累也, 重也."라 하였다. ≪文選≫ 左思 <魏都賦>의 "增構峩峩"의 <注>에 "增, 高也."라 한 것들이 그 증거이다. 위에 언급한 剩 역시 增과 음·의가 유사하므로 동원관계가 된다.

層

≪설문≫ 尸部에 "層, 重屋也. 從尸, 曾聲."

이층이나 다층 구조의 집을 말하며, 후에 층을 세는 양사로 쓰이게 되었다. 다층 구조의 집은 높으며, 높은 집은 올라가야 한다. 層 역시 登과 동원관계이다.

www.kci.go.kr

竲

≪설문≫ 立部에 “竲, 北地高樓無屋者. 從立, 曾聲.”

北地는 郡의 명칭으로 이곳의 높고 지붕이 없는 집을 말한다. 단옥재 <注>에 “禮運曰夏則居曾巢. 鄭曰署則聚薪柴居其上也. 此竲之始也.”(예운에 여름에는 증소에서 기거한다고 하였다. 鄭元은 <注>에서 더워지면 나무를 모아 그 위에서 기거한다고 하였다. 이는 竲의 시초일 것이다.)고 하였다. 이의 曾巢(禮記의 판본에 따라 橧巢, 竲巢라고도 쓴다.)는 바로 앞의 乘字에서 有巢氏의 전설과 관련지어 언급한 巢居形 주거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竲은 乘과 같으므로 登과 동원관계이다.

橧

≪廣雅・釋宮≫에 “橧, 巢也.”

위의 竲에서 말한 바와 같이 橧은 竲의 이체자이다. 竲은 從立으로 ‘우뚝하다’는 의미이며, 橧은 나무 위에 세우기 때문에 從木이라 했을 것이다.

矰

≪설문≫ 矢部에 “矰, 𥫱射矢也. 從矢, 曾聲.”

矰은 화살을 끈에 메어서 하늘을 나는 매나 소리 개를 잡는 주살을 뜻한다. 이는 높이 쏘아 올리는 화살로 ‘높다’, ‘높이 오르다’는 뜻을 갖는다. ≪周禮・司弓矢≫에 “矰矢茀矢用諸弋射.”의 <注>에 “結繳於矢謂之矰. 矰, 高也.”라 한 것이 그 증거가 된다. 矰의 ‘높다’는 뜻은 성부 曾에서 온 것으로 登과 동원관계이다.

嶒

≪廣韻・蒸韻≫에 “嶒, 崚嶒, 山皃.”

崚嶒은 ‘높고 험한 산’이라는 뜻이다. 嶒의 從曾聲은 ‘높다’는 뜻으로 登과 동원관계라 할 수 있다.

www.kci.go.kr

翬

≪廣雅・釋詁一≫에 “翬, 擧也.”

≪廣雅・釋詁三≫에 “翬, 飛也.”

翬이 從羽의 문자인 것으로 보아 ‘높이 날아오르다’는 의미일 것이다. 翬의 從曾聲은 ‘높다’, ‘오르다’는 뜻으로 登과 동원관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루의 初文인 曾字는 구조와 용도, 모양에 의해 의미가 인신되어 ‘오르다’, ‘쌓다’, ‘겹치다’, ‘높이다’, ‘높다’는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위의 從曾聲의 諧聲字는 登字와 동원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6. 從朕聲

滕

≪설문≫ 水部에 “滕, 水超踊也. 從水, 朕聲.”

滕은 ‘물이 용솟음쳐 오르다’는 뜻이다. <段注>에 “超踊皆跳也. 跳躍也. 小雅百川沸騰. 毛曰沸出騰, 乘也. 騰者滕之假借.”(超와 踊은 모두 솟구치다 이다. 跳躍의 의미이다. 小雅에 百川沸騰이라 하였는데 毛傳에 끓어 솟구치다 라 하였고, 乘의 뜻이며 騰은 滕의 가차이다.)라 하여 滕은 騰과 통하며, 乘의 의미라 풀이하였다. 滕은 본의가 물이 솟구치다 는 뜻이며, 인신되어 ‘오르다’는 뜻을 갖는다. 滕은 徒登切로 定紐 6部로 登과 동음이다. 滕은 登과 동음이며, 의미가 유사하므로 동원관계라 할 수 있다. 從滕聲의 문자 중에 ‘솟아오르다’, ‘우뚝하다’, ‘넘다’는 뜻을 가진 문자가 있다. 이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騰

≪설문≫ 馬部에 “騰, 傳也. 從馬, 朕聲.”

≪설문≫은 “傳也”라 하여 擺撥馬 처럼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빨리 달려야 하므로 騰은 ‘달리다’나 ‘뛰어오르다’는 뜻을

www.kci.go.kr

갖는다. ≪廣雅·釋詁一≫에 “騰, 上也.”, ≪字彙≫ 馬部에 “騰, 升也.”라 하였으며, ≪楚辭·九歎·愍命≫의 “騰驢贏以馳逐.”의 <注>에도 “騰, 乘也.”라 하였다. 이로써 騰은 滕과 의미가 유사하므로 登과 동원관계이다.

塍

≪설문≫ 土部에 “塍, 稻田中畦埒也. 從土, 朕聲.”

塍은 논과 밭의 경계를 이루도록 우뚝하게 솟게 만든 두둑을 말한다. 두둑이란 높게 만든 지면을 뜻하므로 塍 역시 ‘높다’, ‘우뚝하다’는 뜻을 갖는다. 塍 역시 滕과 음·의가 상통하므로 登과 동원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塍의 이체자로는 埁과 畻, 堘이 있다. ≪集韻·蒸韻≫에 “塍或作埁, 畻, 堘.”이라 하였다.

勝

≪설문≫ 力部에 “勝, 任也. 從力, 朕聲.”

勝은 ‘감당하다’는 뜻이다. <段注>에 “凡能擧之, 能克之皆曰勝.”이라 하였다. 모든 힘으로 들어 올리고 견디어 낼 수 있는 것을 모두 勝이라 한다고 하였다. ≪廣韻·蒸韻≫에 “勝, 擧也.”라 하였고, ≪國語·周語下≫ “不過一人所勝”의 <注>에도 “勝, 擧也.”라 하였다. ≪詩·小雅·正月≫에 “靡人弗勝”의 <注>에 “勝, 乘也.”라 하여 勝을 ‘극복하다’, ‘오르다’의 뜻으로 보았다. 이로 보아 勝 역시 登과 동원관계라 할 수 있다.

賸

≪설문≫ 貝部에 “賸, 物相增加也. 從貝, 朕聲.”

≪설문≫은 聲訓 방식으로 增으로 賸을 풀이하였다. 이를 통해 賸과 增이 독음과 의미가 모두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段注>에도 “以物相益曰賸之本義也.”라 하였다. 즉 물건을 서로 보태거나 올려놓는다는 것이 본의이며, 이에서 ‘여유롭다’, ‘남다’는 등의 뜻을 갖게 되었다고 보았다. ≪集韻·徑韻≫에 “賸, 俗作剩”이라 하였고, <段注>에도 “改其字作剩, 而

www.kci.go.kr

形異矣.”라 하여 剩을 媵의 이체자로 보았다. (앞의 剩자 참조)

이와 같이 ‘물이 용솟음쳐 오르다’는 의미의 滕字는 그 의미가 인신되어 ‘오르다’, ‘높이다’, ‘높다’, ‘극복하다’는 등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滕을 비롯한 騰, 塍, 堘, 塍, 勝, 媵의 從朕聲의 諧聲字는 登字와 동원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7. 從夌聲

夌

≪설문≫ 夂部에 “夌, 越也. 從夂夋(록), 夋, 高大也.”

夌은 높고 큰 것을 ‘넘는다’는 뜻이다. ≪說文通訓定聲≫에서 “夂而乘高, 是夌越之意也.”라 하여 ‘걸어서 높은 곳에 오른다는 것이 바로 넘는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면, 夌 역시 ‘넘다’, ‘오르다’는 뜻이 되므로 登과 의미가 통한다 할 수 있다. 夌은 力膺切로 來紐, 6부의 문자이다. 來紐는 定紐와 같이 舌音으로 성모가 상근하며 6부로 첩운관계이다. 따라서 夌은 登과 음·의가 상통하므로 동원관계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설문≫ 冫部에 “滕[12], 冫出也. 從冫, 朕聲. 凌, 滕[13], 或從夌.”이라 하였다. 이에서 보면, 凌과 滕은 이체자로 성부 從夌聲과 從朕聲이 서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동원관계임을 증명하는 한 증거가 될 수 있다.

陵

≪설문≫ 阜部에 “陵, 大阜也. 從阜, 夌聲.”

≪釋明·釋山≫에 “陵, 大阜曰陵. 陵, 隆也. 體隆高也.”라 하였고, <段注>에도 “按引申之爲乘也, 上也.....”라 하였다. 이로 보아 陵은 높게 솟아

12) 이 문자는 원래 從冫의 문자이나 활자가 없어 從水의 滕으로 썼다.
13) 위와 같음.

www.kci.go.kr

오른 언덕이 본의이며, 이에서 ‘높다’, ‘오르다’라는 인신의를 갖게 되었다. ≪文選≫ 張衡의 <西京賦> “陵重巘, 獵昆駼.”의 <注>에 “陵, 猶升也.”라 하였다. 이로 보아 陵의 성부 夌은 ‘높다’, ‘오르다’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陵은 登과 동원관계로 볼 수 있다.

峻

≪廣韻・蒸韻≫에 “峻, 峻嶒, 山皃.”

앞의 嶒자에서 설명했듯이 峻嶒은 첩운 연면사로 높고 험한 산을 형용하는 말이다. 따라서 峻의 從夌聲은 ‘높다’는 뜻으로 登과 동원관계이다.

從夌聲의 문자 중 일부는 위와 같이 ‘오르다’, ‘높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일부 從夌聲의 諧聲字는 登字와 동원관계를 갖는다 할 수 있다.

8. 從升聲

升

≪설문≫ 斗部에 “升, 十合也, 從斗, 象形.”

升은 자루가 달린 용량을 재는 용기의 상형문자로 斗의 1/10이며, 合의 10배이다. 본래 登과는 횡적으로 의미상 연관이 없어 동원관계의 문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후에 이 문자는 登과 음이 매우 유사한 관계로 登의 의미로 통가되어 본의와 통가의가 함께 사용되었다. 후에 본의는 枡자를 전용문자로 만들기도 하였다. ≪說文通訓定聲≫에서 “升叚借爲登, 字亦作昇, 作陞.”이라 하여 통가관계를 설명하였다. 실제로 ≪詩・小雅・天保≫에 “如日之升”의 <傳>에 “升, 出也.”라 하였고, ≪禮記・禮器≫ “升中於天”의 <注>에 “升, 上也.”라 하여 升이 登으로 차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升은 識蒸切로 端紐, 6부의 문자로 登과 같이 舌音으로 성모가 매우 상근하고 첩운관계이다. 따라서 升은 통가에 의해 登과 동원관계를 맺게 되었다. 從升聲의 諧聲字 중 登과 동원관계를 갖는 문자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www.kci.go.kr

昇

≪說文新附≫ 日部에 “昇, 日上也. 從日,升聲. 古只用升.”

昇은 일출을 나타낸다. 升이 登의 통가의로 사용되자 형부 從日을 가해 일출을 나타내는 문자 昇을 만들게 되었다. 昇의 성부 升은 登에서 통가된 의미로 성부의 표의기능을 하고 있다. 昇은 성부통가에 의한 登의 동원자이다. 아래의 예 역시 마찬가지이다.

抍

앞의 ‘撜’字條 참조.

陞(陞)

≪廣雅・釋詁一≫에 “陞, 上也..”

≪集韻・蒸韻≫에 “陞, 登也. 或省.”

陞 역시 ‘오르다’는 뜻으로 이체자로 陞이라 쓰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登의 동원자이다.

鵬

≪中文大辭典≫ 鳥部에 ≪篇海≫를 인용하여 “鵬, 登也.”라 하였다. 문자가 從鳥인 것으로 보아 ‘새가 날아오르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역시 登의 동원자이다.

升은 주로 登의 통가자로 쓰였고, 본의는 별도로 형성자 枡자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자 從升聲의 諧聲字들은 登과 동원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Ⅲ. 結 言

漢字에서 聲訓과 右文說을 시작으로 ‘從某聲之字多有某義’와 ‘音韻相同,

www.kci.go.kr

義亦相通’ 등은 同源字를 연구하는 이론적 기초라 할 수 있다. 즉 한자에서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독음이 같거나 유사한 문자들은 의미상에도 유사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를 이론적 기초로 삼아 ‘오르다’, ‘타다‘, ‘높이다’, ‘높다’는 등의 의미로 상용되는 ‘登’자를 중심으로 橫的으로는 同音이나 聲近韻同의 관계에 있는 丞, 承, 乘, 曾, 朕, 夌, 升字를 연계시키고, 縱的으로는 이들을 성부로 갖는 諧聲字를 대상으로 동원자를 찾아 그 관계를 탐색해 보았다.

이를 행위의 대상이나 주체의 측면에서 분석하면, 登은 말이나 수레, 乘은 나무를, 夌은 산언덕을 ‘오르다’ 이며, 丞과 承은 사람을 건지거나 받들어 ‘올린다’는 뜻이며, 曾은 시루를 쌓아 ‘올리거나’ 수증기가 ‘피어오르다’이고, 朕聲의 滕은 물이 ‘솟아오르다’ 이다.

字形에 따른 근원적인 의미는 대상이나 주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독음이 유사하고 의미의 源流나 혹은 통가현상에 의해 의미상 서로 유사성과 공통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을 횡적으로는 제1차 동원자라는 틀 속에서 하나로 연계시켜 ‘字形不同同源字’라 하였다. 또 이 문자들을 성부로 갖는 諧聲字를 행위의 대상이나 주체를 나타내는 형부와 결합시켜 종적인 관계로 연결해보면 동일 聲符에 의한 제2차 동원자 그룹을 형성하게 되며, 이를 ‘諧聲同源字’라 하였다.

登자를 중심으로 이들 同源字 그룹의 종적・횡적 동원관계를 <표>로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登	丞	承	乘	曾(甑, 鬸)	朕	夌	升
簦 隥 墱 嶝 磴 撜 凳 蹬	烝 拯 軯	扌+承	剩 堘	熷 增 層 橧 矰 嶒 鬸	騰 塍 塖 睉 勝 賸	陵 崚	昇 抍 陞 (阩) 阩 鼾

www.kci.go.kr

이상의 문자들은 서로 同音이거나 聲近韻同의 近似音의 관계에 있으면서 의미 또한 유사하므로 성부를 互換할 수도 있고 통용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모두 登字를 중심으로 一群의 同源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漢字를 다 동원관계로 묶을 수는 없다. 어떤 문자는 성부의 표의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아 동원관계를 밝히기 힘든 것도 있고, 心證은 가지만 문헌적, 음운적 자료나 연구 부족으로 증명해내기 어려운 것도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의 활용과 깊은 연구를 통해 同源字를 찾아내어 종적·횡적 관계로 연계시키는 작업은 향후 동원자 연구와 漢字의 새로운 교수·학습법 개발에 자못 공헌하는 바가 클 것이다.

<參考文獻>

許愼,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초판; 臺灣: 漢京), 1980.3.

顧野王, ≪玉篇≫(國字整理小組)

陳彭年 等, ≪宋本廣韻≫(4版; 黎明文化事業公司), 1981.9.

丁福保, ≪說文解字詁林≫(臺灣: 鼎文書局), 1977.

≪十三經注疎≫(藝文印書館)

容庚, ≪金文編≫(臺灣: 弘道文化事業有限公司), 1960.

李孝定, ≪甲骨文字集釋≫(初版; 臺灣: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65.

魯實先, ≪假借遡原≫(臺灣版)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5판; 中華學術院), 1980.9.

王力, ≪同源字典≫(1版; 北京: 商務印書館), 1987.4.

高亨 編著, ≪古字通假會典≫(齊魯書社出版), 1989.7.

劉翔 等 共著, ≪商周古文字讀本≫(1版; 語文出版社), 1989.9.

王鳳陽, ≪漢字學≫(初版; 吉林文史哲出版社), 1989.12.

裘錫圭, ≪文字學概要≫(再版; 北京: 商務印書館), 1990.4.

詹鄞鑫, ≪漢字說略≫(初版; 遼寧教育出版社), 1991.

www.kci.go.kr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1版; 中華書局), 1996.5.
殷寄明, ≪漢語語源義初探≫(1版; 學林出版社), 1998.1.
許威漢, ≪漢語文字學概要≫(1版; 上海大學出版社), 2002.2.
趙克勤, ≪古代漢語詞彙學≫(2版; 商務印書館), 2005.10.
何九盈, 蔣紹愚, ≪古漢語詞彙講話≫(1版; 中華書局), 2010.11.
진광호, <형성자 성부 替換 현상>, ≪영남중국어문학≫49집: 2007.6.
진광호, <從甬聲 語源義文字 探索>, ≪영남중국어문학≫54집: 2009.12.
진광호, <“含” 同源字 探索>, ≪대한중국학회≫38집: 2011.4.

<中文提要>

‘右文說’與‘從某聲之字多有某義’, ‘音韻相同, 義亦相通‘等說法都是研究同源字的理論基礎。所以同源字是, 簡要地說, 指讀音相同或相近, 意義相通, 而有同一來源的文字。同源字之間, 讀音與意義上具有同一或類似來源的關係。

本稿從這一思路出發, 以‘登上’的‘登’字爲中心, 要查出與‘登’字有音・義關係的文字, 證明出它們之間的同源關係。≪說文解字≫ 癶部說 “登, 上車也. 從癶豆, 象登車形.”。就是踩上像‘豆’之形的踩板上車的意思, 後來就引伸爲‘登上’, ‘攀登’, ‘高’, ‘擧高’ 等之義。同源關係可分爲兩種類型, 一是橫向上的, 叫作‘字形不同同源字’, 如登, 丞, 承, 乘, 曾. 滕, 夌, 升。二是縱向上的, 就是以上述之字爲聲符的, 叫作‘諧聲同源字’。

漢字當中跟‘登’字有讀音與意義上同源關係的字。例如,

登	丞	承	乘	曾(甑, 繒)	滕	夌	升
簦 隥 墱	烝 拯 輕	扌+承	剩 堘	熷 增 層	騰 塍 堎	陵 崚	昇 抍 陞

www.kci.go.kr

嶝 磴 撜 凳 蹬				橙 嶝 嶝 鐙	睁 勝 媵		(阱) 阱 鯨

同源字研究是一種把零星的文字以讀音與意義上的關係系聯爲同源字族的成員的作業, 這種作業對今後的同源字研究與漢字教學研究, 會有很大的貢獻。

주제어 : 登, 同源字, 同音, 聲符, 諧聲字, 通假

www.kci.go.kr